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208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42)

산상의 광활한 화원, '식물종 피난처'

입력 : 2004. 08.13. 00:00:00



▲선작지왓과 한라산 정상. 한라산 특산식물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이곳은 봄이면 털진달래와 산철쭉으로 온통 진분홍빛 산상화원을 이룬다. /사진=강경민기자 qmkanq@hallailbo.co.kr

○... 한라산 영실등반로의 병풍바위를 지나 구상나무숲을 벗어나면 거칠 것 없는 시야가 한 눈에 들어온다. 한라산 주봉인 백록담 화구벽을 정면으로 왼쪽에는 세 개의 오름군인 윗세오름, 오른쪽에는 세 개의 방해오름군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다. 그 북판에 광활한 면적의 고산초원이 펼쳐진다. 바다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칠십리바다 서귀포가 운해를 거느리고 태평양으로 이어진다. 가히 선경이다. 이 고산초원이 바로 '선작지왓'이다. 선작지왓은 본보 한라산탐사단에 의해 수차례 조명되고 있는 곳이다....○

△선작지왓(上)

'선작지왓'은 제주어인 자갈무더기를 의미하는 '작지'로 된 밭(왓, 벌판)이라는 뜻이다. '생작지왓'이라고도 한다. 지질학자 강순석박사는 "선작지왓은 지질학적으로 백록담을 구성하고 있는 암질인 조면암이 풍화침식을 받아 부서진 파편들이 5m 이상의 두께로 층층이 쌓여 있는 평평한 곳이므로 선작지왓의 어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선작지왓의 가장자리인 윗세오름은 '위에 있는 세 오름(기생화산)'을 뜻한다. 백록담에 가까운 것부터 붉은 오름, 누운오름, 새끼오름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등산로는 누운오름과 붉은오름의 사이를 통해 윗세오름대피소로 이어진다.

이 샘에서 윗세오름대피소까지는 5분쯤 걸린다. 대피소에는 간이매점과 50여명을 수용하는 통나무집대피소가 있다. 또 국립공원의 직원 3명이 일년내내 머물면서 등산객의 조난사고에 대처하고 통제구역출입을 막는다.

선작지왓의 중요도는 이곳이 바로 '생태공간'이기 때문에 더욱 강조된다.

선작지왓은 해발 1400m 이상 지역으로 한라산의 식물분포대로 볼 때 구상나무로 대표되는 아고산 침엽수림대와 털진달래, 눈향나무, 시로미 등이 분포한 고산초원으로 형성돼 있다. 고산초원은 남사면, 동사면, 서사면의 상부 및 정상과 그 주변부를 포함한 광활한 지역에 펼쳐져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김찬수박사(난대산림연구소)는 "한라산 선작지왓 일대와 같은 고산초원은 설악산이나 지리산의 정상부에서도 볼 수 있으나 이곳은 면적이 한라산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하고 일종의 '정상효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라산의 고산초원이 남한에서는 유일하다"고 말한다.

특히 선작지왓에는 3백여종의 식물들이 관찰되는데 대부분 북반구의 극지방이나 고산대 식물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와 한국특산식물들이 이곳에 밀집돼 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들의 피난처'인 것이다.

이 선작지왓의 비경은 봄에 그 빛을 발한다. 수십만평이 초원이 털진달래와 산철쭉으로 뒤덮히기 때문이다. 진달래와 철쭉이 차례로 피는데, 눈이 녹기 시작하는 4월부터 신록이 짙어가는 6월초까지 이 초원은 온통 분홍빛갈의 산상화원(山上花園)을 이룬다. 이때 철쭉제가 열린다. 초봄에 갑자기 추위가 엄습할 때는 진달래 꽃잎에 설화가 입혀지는 진 풍경이 연출되기도 한다.

선작지왓의 또다른 가치중에는 노루들의 집단서식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주변에는 연중 거의 마르지 않는 샘이 있다.

윗세오름 중봉인 누운오름자락을 돌면서 등산로가 90도가량 꺾이는데, 이 모퉁이에 샘이 하나 있다. 윗세오름대피소에서 가장 가까운 샘인 노루샘이다. 심한 가뭄때만 빼고는 연중 물이 흐르는 곳이다. 이 지역의 샘터는 모두 1급수로 시원하기가 이를 데 없다.

한라산 윗세오름에서 정상 남벽으로 향하는 등산로를 따라 30여분 동안 동남쪽으로 내려 가면 방애오름 서쪽 기슭에 백록샘이 위치해 있다. 한라산 정상 부근에서 용출하는 흔치 않는 샘 중 하나인데, 이 샘은 산을 오르내리는 이들에게는 물론 동물과 식물에도 매우 중요한 샘이다.

노루샘과 백록샘은 노루들에게도 귀중한 곳이 아닐 수 없다. 노루들은 적게는 2~3마리, 많게는 6~7마리씩 무리지어 산상초원을 누비고 다닌다. 마치 산책하는 연인이나 동산을 뛰어 노는 개구쟁이들, 또는 단란한 가족들의 나들이처럼 보기에다 정겹다.

이곳에 노루들이 집단 서식하는 것은 등산객들의 입산이 엄격히 통제돼 은신처가 많아진데다 풍부한 먹이자원과 사철 마르지 않는 샘이 있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것은 일부일처제로 알려져 온 노루가 서열이 높은 수컷일 수록 짝짓기 성공률이 높아 일부다처제로 확인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연구결과를 내놓은 한라산연구소 오장근 연구원은 "최근 20여년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가 증가하여 짝짓기 기회가 많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전문가리포트]한라산 고산 생태계의 유일한 보고

선작지왓은 동쪽의 방해오름, 서쪽의 영실기암 능선, 남쪽의 산림지대, 북쪽의 윗세오름 능선에 이르는 해발 1,600~1,700m에 위치한 광활한 지역이다.

선작지왓일대에는 털진달래와 산철쭉을 주요 종으로 하는 관목림지역과 눈향나무, 시로미와 같은 포복성 고산식물군락 지역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 곳의 관목림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경관자원을 지니고 있으며 한라산에서 유일하게 아고산대의 자연생태계를 대표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자연적 환경조건으로 형성된 일부 나지의 발달, 암석의 노출 등은 아고산대 특유의 경관 자원과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즉, 선작지왓일대는 노출된 암석지와 쉽게 부서지는 조면암의 파편들로 이루어진 자갈밭이 형성되어 있어 토양 발달이 미약하고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조건을 가졌다. 이로 인해 한라산의 다른 아고산대 지역에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제주 조릿대와 같은 벼과식물이 발달하지 않는 특성을 지녔다. 반면 벼과식물이 발달된 군락내에서 종간경쟁에 의해 밀려난 고산식물들의 분포가 두드러지며 특히, 눈향나무 및 시로미군락의 발달은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선작지왓일대에는 300여종의 식물이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 종 수는 한라산 해발 1,400m 이상의 아고산대에 자생하는 식물 중 대부분이 이곳에 분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들 지역에 자라는 제주달구지풀, 흰땃딸기, 두메대극, 설앵초, 금방망이, 구름떡쑥, 한라돌창포, 손바닥난초, 자주평의다리 등 고산식물의 상당수는 한라산 또는 우리나라에만 자라는 특산식물이나 희귀식물이며 북방계 식물로서 학술적, 자원적 가치가 매우 높다.

이처럼 인간의 간섭이 배제된 선작지왓은 집중 강우, 강한 바람 등의 열악한 환경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지피식생의 파괴, 나지형성, 식물의 이입과정이 반복되면서 극한 환경조건에서 잘 적응하는 다양한 고산식물들의 지속적인 종 보전이 이루어지는 고산지대의 독특한 환경조건을

지닌 곳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작지왓은 한라산만이 갖는 산상화원으로서의 경관적 가치와 다양한 특산, 희귀식물을 포함한 종 다양성의 가치 등을 지닌 고산 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다.

<고정균 탐사위원(한라산연구소/ 식물생태생리분야)>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